



## 우리 대학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의 잇따른 성과 연극제 수상부터 영화제 진출까지

우리 대학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연극과 영화 분야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학생들은 전공 실습에서 제작한 연극으로 연극제에서 수상했으며, 졸업생은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로 국내 영화제 경쟁부문에 선정됐다. 이는 교내에서 진행된 작품 제작 경험이 외부 무대와 영화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3학년 전공제작실습을 통해 제작된 연극 '출세기'는 '제34회 젊은 연극제 YTF SPOTLIGHT'에 참가해 단체 부문에서 '원더풀 하모니'를 수상했다. 문경태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됐으며, 연출은 문경곤 학생이 맡고 작품에 출연한 김현기 학생은 개인 부문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윤대성 작가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갯도 붕괴 사고

로 매몰됐다가 구조된 광부 김창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고 이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유명해진 인물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출세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의 영향과 인간의 욕망,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다룬다.

김현기 학생은 주인공 김창호 역을 맡아 사고 이후 달라지는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표현했다. 개인 부문 연기상 수상은 배우로서 표현력과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단체 부문 원더풀 하모니상 수상은 배우와 연출, 제작진이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 협력한 과정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전공 수업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을 연극제에 출품하고 수상까지 이어진 점은 학



▲ 연극 '출세기'에 참여한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학생들

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한편, 졸업생의 영화 분야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출신 안민혁 감독의 단편영화 '여행자의 일지'는 '제13회 춘천영화제 한국단편경쟁'과 '제27회 대구단편영화제 국내경쟁'에 각각 선정됐다. 여러 작품이 출품되는 국내 단편영화제 경쟁부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졸업 이후에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작품은 카메라를 든 주영이 다른 사람들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대부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안민혁 감독을 중심으로 소수의 스태프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감독의 실제 지인들이 제작진과 배우로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모

습을 작품에 담아냈다. 해당 단편영화는 교내 서일예술제에서 상영된 이후 외부 영화제 경쟁부문에 선정됐다. 춘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에는 총 1,335편 중 단 16편만 선정됐으며, 대구단편영화제 국내경쟁 역시 1,386편 중 35편만이 이름을 올렸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두 영화제에 모두 선정되면서 교내 제작 작품을 외부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 대학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는 연극과 영화 제작을 비롯해 웹드라마, 예능,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작품의 기획부터 촬영과 공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전공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또한 완성한 작품을 교내에서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공연과 영화제에 출품하며

실제 현장과 연결할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 과정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실제 제작 과정에 적용하고 자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두 사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전공 과정에서 쌓은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과 영상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이 실제 연극제와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의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어지며 학생과 졸업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더 넓은 현장과 관객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가인 기자 vww.n00@gmail.com

### 데이터로 바꾸는 우리의 이동

## AI와 함께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공모전

26. 8. 18. 화 - 10. 22. 목

한겨레 X 재단법인 숲과나눔

공모 주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공공·민간데이터, 시민과학 데이터 등 활용 가능한 각종 데이터

참가 대상: 교통·도시·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참가 방법:

- 예선
  - ① 참가신청서(필수) - 서명 포함 스캔 PDF
  - ② 분석보고서(필수) - PDF, 본문 5장 내외, 분석 코드는 GitHub/클라우드에 업로드 후 열람 링크 기재
- 결선: PPT 발표자료(개별 안내 예정)

사무국 | ☎ 02-6925-4250 ✉ [yaerumjung@koreashe.org](mailto:yaerumjung@koreashe.org)

| Contents |                                   |
|----------|-----------------------------------|
| 1 중 합    | 우리 대학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의 잇따른 성과          |
| 2 면 보    | 우리 대학,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마무리       |
| 3 면 보    |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 7 면 특    | 한글날 100주년                         |
| 8 면 인터뷰  | 유아교육학과 학회장 '지현아', 전기공학과 학회장 '이학민' |

### 알려드립니다

• 09월 30일(수) ~ 10월 02일(금) : 제52회 용마문화축제

• 10월 20일(화) ~ 10월 26일(월) : 2학기 중간고사

## 보도기사

## 우리 대학,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마무리

## 우리 대학,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5년도 4분기부터 서일관과 홍학관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30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의 목적은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환경은 강의실이나 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사는 의의를 가진다.

공사 범위는 서일관과 홍학관으로 나뉜다. 서일관에서는 승강기 설치와 화장실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기존 건물에서 층을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건물 내 이동 환경이 개선됐다. 특히 계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학생이나 무거운 물품을 옮겨야 하는 경우 등 건물 내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화장실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홍학관은 3층을 통합사무실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여러 업무 공간을 하나의 통합사무실로 구성함으로써 해당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공간을 정비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행정적인 도움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를 방문하게 되는 만큼, 통합사무실 조성은 학생들의 학교 이용 편의와도 연결된다.

특히 서일관의 승강기 설치의 건물 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업을 위해 여러 층을 오가거나 필요한 공간을 찾아



▲ 대학 조감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단 외에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장실 리모델링 역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교육환경 개선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홍학관 3층의 통합사무실 조성 또한 학생들이 학교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러 업무와 관련된 공간이 정비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생으로서는 이용하는 건물의 시설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변화가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 수업과 이동, 학교생활의 과정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공간의 변화는 일상적인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사는

단순히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환경개선은 학생들이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학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은 건물 내 이동과 편의시설 이용, 행정 업무 처리 등 학교생활의 여러 과정에서 더욱 정비된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 기획보도 1

중랑구, 제2기 중랑 케어마스터 과정 개강  
현장 직무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

중랑구가 지난 9월 1일 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2기 '중랑 케어마스터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중랑 케어마스터 과정'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심리적·신체적 피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2기 중랑 케어마스터 과정 개강식

이번 과정은 오는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돌봄 기술 ▲치매 어르신 인지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등 맞춤형 직무교육과 ▲영화 관람 ▲액막이 명태 도어벨 만들기

등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들이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업무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제1기보다 참여 대상과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 제1기에는 요양보호사 51명이 참여해 49명이 수료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0.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넓히고 참여 인원도 70명으로 늘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 기획보도 2

중랑구, 구청 로비 무더위쉼터서 영화 상영  
영화 상영부터 폭염저감시설 확대까지. 구민 안전 위한 대응 나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중랑구가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에 나섰다. 구청사 내 무더위쉼터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랑구에서는 지난 8월, 구청사 1층 로비 무더위쉼터에서 영화를 무료 상영했다. 영화는 평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하루 한 편씩 상영됐으며,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로비 멀티비전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주요 구정 소식과 생활·안전 정보,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동시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무더위쉼터와 안전시설도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3개소 늘어난 총 153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 어르신을 위한 안전숙소도 지난해보다 2개소 늘어난 12개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그늘막 197개소와 쿨링포그, 중랑옹달샘 등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누구나 편안하게 더위를 피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청 로비 무더위쉼터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이나정 기자 najung071107@gmail.com

## 심층보도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알바생의 권리 보호 방법

개강 시즌 대학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서면 계약 없이 근무를 시작했다가 임금 체납이나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보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 학우들의 정당한 노동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4대 노동권 연속 기획을 보도한다.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소년 및 청년 알바생 5명 중 1명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작성 의무 자체를 몰랐다'라고 답한 비율이 40%로 1위를 차지해 법적 인식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작성 거부나 껄끄러운 관계 형성 우려가 그 뒤를 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작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단 7.0%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업주가 보관만 하고 알바생에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또한 명백한 법 위반이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까다로우므로 서면 교부가 법적 권리 보호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서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하는 조항은 총 다섯 가지다.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과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 장소 및 담당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이 해당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 시간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명 직전 불리한 조항을 검토하는 절차 역시 필수적이다. 첫째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 임금제 조항 여부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근무 시 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조항에 서명하면 가산 수당을 요구하기 어렵다. 둘째는 무단결근이나 조기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불법 위약금 조항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 시리즈 순서

- 1) 최저임금과 수습 기간
-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 4) 알바의 4대 보험



20조에 따라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셋째는 하루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 휴게시간과 수습 기간 감액 협의 여부다.

조사 결과처럼 최저시급 미달을 겪은 알바생 중 49.3%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답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9.9%에 그쳤다. 이미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중인 학우라면 사업주에게 학교 제출이나 세금 정리 등 유연한 사유를 들어 작성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추후 진정에 대비해 ▲출퇴근 기록부 사진 ▲교통카드 승차차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근무표 사진 ▲임금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약속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사업장의 기존 관행이나 껄끄러움에 얽매이지 않고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요구하고 확인하는 태도가 우리 대학 청년 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다.

표진아 기자 treasureshine29@gmail.com

## 학생의 목소리

##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날씨가 슬슬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며 학교 생활해요!

— 보내는 사람: 익명

##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드디어 2026 축제가 시작되었네요!  
저희 재밌게 축제 즐기고 곧 올 시험기간에도 파이팅합시다!

— 보내는 사람: 익명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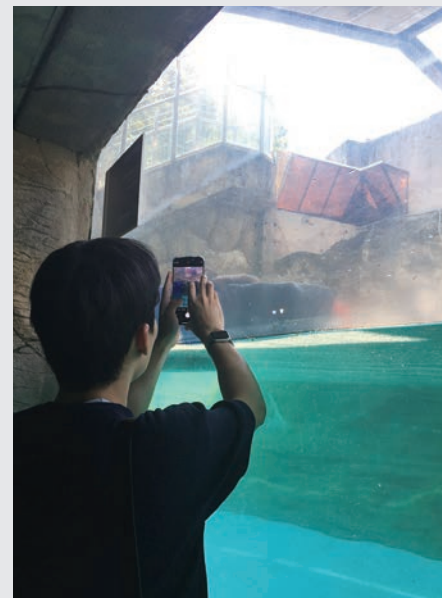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확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학생 INTERVIEW

## 옷 고르는 나만의 꿀팁

저는 옷을 고를 때 남들과 너무 똑같이 겹치는 스타일은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옷을 잘 모른다면 무작정 유명 쇼핑 앱의 인기 제품이나 순위템을 따라 사기보다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나 패션 플랫폼의 피드를 참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쇼핑몰이나 유니크한 옷, 빈티지 계정의 다양한 코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취향이 뚜렷해지고 옷을 고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평소 스타일이 비슷한 인플루언서나 마음에 드는 계정을 팔로우하며 스타일을 찾는 것이 저만의 꿀팁입니다.



▲ 미디어출판학과 23학번 조민재

## 지역사회



# 중랑구 어린이 단편영화 '지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본선 진출

## 자치구가 아이들 꿈에 날개 달아준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중랑양원미디어센터 '2025 어린이 영화교실'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지아'가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국제어린이감독경쟁 부문 본선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상영시간 4분 37초의 극영화 '지아'는 가족여행 중 단짝 친구 윤아가 전학생 지아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겪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섬세하게 담아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5명은 연출부터 촬영, 연기, 편집 등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 이를 통해 '지아'를 비롯한 총 4편의 단편영화를 완성하며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했다.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롯데시네마 은평과 은평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개최됐다. 특히 '지아'는 국제어린이감독경쟁 부문에 출품된 162편의 작품 가운데 3개국 8편의 본선 진출작에 선정되며 큰 주목을 이끌었다. '지아'는 지난 9월 12일과 13일 오전 11시에 상영됐으며, 12일 오후 12시 30분에는 '감독과의 대화(GV)'가 진행됐다. 작품 제작에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들도 참석해 생생한 제작 에피소드를 관객과 공유



▲ '2025 어린이 영화교실' 수료식 모습

했다.

한편, 중랑양원미디어센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구민이 영화 제작과 창작 활동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한 '2026 어린이 영화교실'에는 어린이 19명이 참여해 2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센터의 영화 제작 교육과 지원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공지능 영화 '내일로 가는 문'이 국내외 영화제에 선정되고 단편영화 '조금 긴 독백'이 미장센단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되는 등 작품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터 제작, 작품 발표까지 이어지는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

역 영상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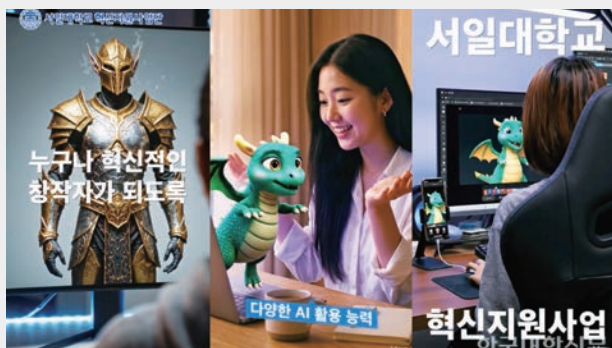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 영화제를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화를 배우고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 서일소식

## 우리 대학, 2026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솜품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AI계 임융합학과 허혜림 학생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2026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솜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2026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솜품 영상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이번 공모전은 솜품 콘텐츠를 활용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알리고, 학생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사업 이해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혁신지원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허혜림 학생은 'AI역량 강화, 내일을 만드는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솜품 콘텐츠를 제작했다. 콘텐츠에는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과 성장 과정을 담아냈으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교육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허혜림 학생의 창의성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혁신지원사업의 교육성과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학생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사업 성과를 친근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김정아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역량을 키우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 학과 STORY

## 비즈니스중국어과 글로벌 시대의 중국 전문 인재 양성

우리 대학 비즈니스중국어과는 중국어 활용 능력과 실무 역량을 갖춘 중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중국어과는 ▲중국어 강독

가오슝사범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글로벌 서일인재 양성 해외전공연수 파견 ▲중국 현지 문화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중국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졸업 후에는 ▲무역회사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HSK ▲HSKK ▲BCT 등 중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공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어와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비즈니스중국어과는 자

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배움의 공간이자 언어와 실무를 함께 배우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장의 장이 될 것이다.

최용철 기자 dydfuf123@gmail.com



▲ 비즈니스중국어과 홈페이지

▲중국어 듣기 ▲HSK ▲HSKK 등을 통해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실무 ▲비즈니스 중한번역 ▲중국어 비즈니스 문서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대만 국립

## 사설

배움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창작의 힘

최근 우리 대학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연극과 영화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학생들은 전공제작실습으로 만든 연극 ‘출세기’로 ‘제34회 젊은연극제 YTF SPOTLIGHT’에서 원더풀 하모니상을 수상했으며, 김현기 학생은 개인 부문 연기상을 받았다. 졸업생 안민혁 감독의 단편영화 ‘여행자의 일지’ 역시 국내 영화제 경쟁부문에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나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이 교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작품 제작에 적용하고, 완성한 결과물을 외부 무대와 영화제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연극 ‘출세기’는 학생들이 연출과 연기에 직접 참여하고 서로 협력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실습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졸업생의 활동 역시 학교에서의 창작 경험이 이후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행자의 일지’는 교내 서일예술제에서 상영된 이후 춘천영화제 한국단편경쟁과 대구단편영화제 국내경쟁에 선정됐다. 이는 학생들의 작품이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관객과 현장을 만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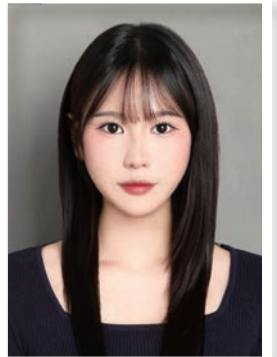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고 발표할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창작 과정에서는 완성된 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수정하는 과정도 중요한 경험이 된다. 외부 공연과 영화제 등 다양한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창작은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부터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수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학생들의 작은 도전이 앞으로 더 넓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창작과 도전이 필요하다.

## 기자칼럼

## 예쁜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일까?

보도부 기자 이나정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디자인을 접한다. 포스터부터 광고, 제품 패키지, 웹사이트까지 디자인은 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예쁜 디자인’은 정말 좋은 디자인일까?

나는 예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디자인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터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다. 눈에 띄는 색깔이나 독특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 역시 한눈에 관심을 끌어야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선을 끄는 것에서 끝난다면 디자인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예쁜 포스터라도 무엇을 홍보하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 행사인지 알기 어렵다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기 힘들다.

요즘 유행하는 포스터 중에는 글자를 독특하게 변형하거나 그래픽 요소로 스타일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디자인은 개성이 뚜렷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작게 배치되거나 글자가 지나치게 변형돼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나 역시 이런 포스터를 보며 ‘예쁘기는 한데, 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결국 좋은 디자인은 예쁨과 정보 전달을 목적에 맞게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자인을 본 사람이 ‘이걸 사고 싶다’, ‘이곳에 가보고 싶다’라고 느끼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디자인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나는 앞으로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스타일도 명확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단순히 예쁘다는 칭찬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행동까지 끌어내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결국 좋은 디자인이란 예쁜 것을 넘어,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디자인이 아닐까.

## 학생칼럼

## “열심히”라는 것은 무엇일까?

전기공학과 백동민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아간다. 나 역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며, 하루를 바쁘게 채우다 보면 그것이 곧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득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 시작은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너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사는 거야”. 뒤통수를 맞은 듯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사는 것과 바쁘게 사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반면 나는 그동안 눈앞의 일을 하나씩 해내는 것만으로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숨이 차도록 달린 뒤, 얼마나 오래 달렸지만 확인하며 뿌듯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지나온 길 덕분에 적어도 내가 다시 앞으로 나갈 체력이 생겼으니 말이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빠르게 달렸지만 확인하지 않으려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힘껏 달려가고 싶다.

어쩌면 열심히 산다는 것은 빠르게 얼마나 달렸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알고 그곳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 서일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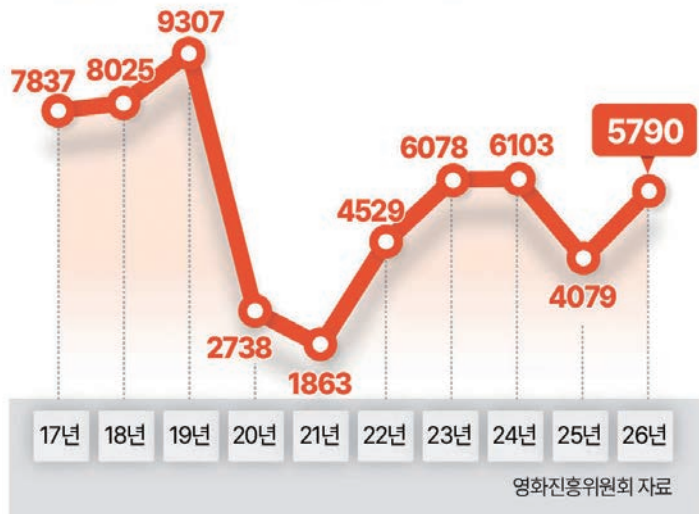
## Don't LOOK BACK



## 사회문화

## 극장, '보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연도별 상반기 영화관 매출 (단위: 억원)



▲ 영화관 매출 그래프

한동안 극장은 Z세대의 외면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으나 극장가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극장 관객은 5,705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4% 증가했으며, 젊은 관객의 유입이 회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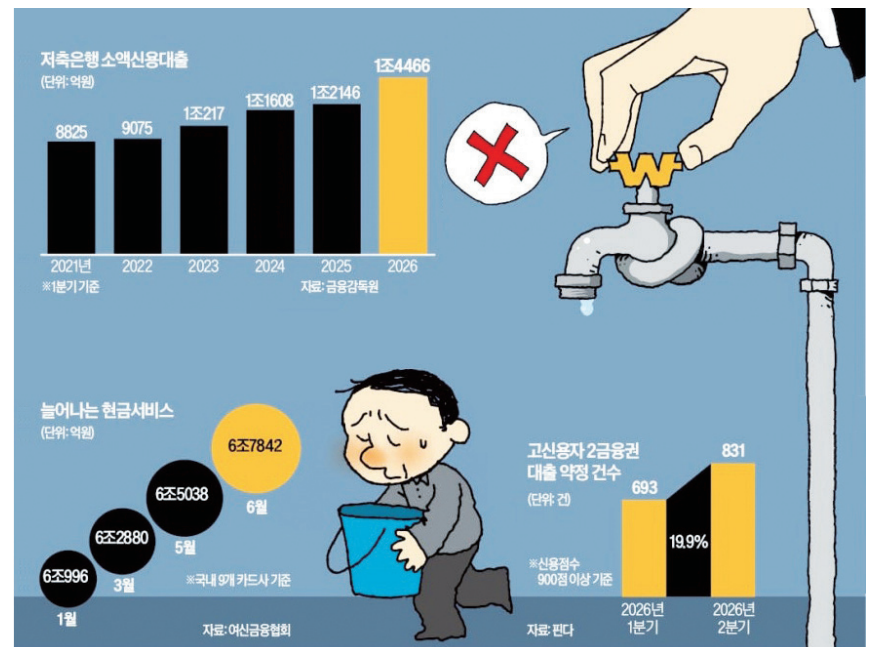
특히 Z세대는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극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별관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스파이더맨'뿐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살목지' 등 중 예산 영화도 20~30대 관객의 호응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극장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친구나 연인과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거나, 관람 인증과 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극장의 경쟁력은 큰 화면과 음향, 함께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가 극장만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 경제

## 은행 대출 신용점수 급등 좁아지는 대출 창구



▲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현황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신용자조차 필요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대출 난민'이 늘고 있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의 2금융권 대출 건수는 831건으로 1분기보다 20% 증가했다. 1,000점 만점 차주의 대출도 52건에 달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며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고신용자의 2금융권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신용자의 상황은 심각하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등의 한도를 줄이면서 생계자금 대출 창구가 좁아지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1조 5,50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도 11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 ROBLOX

## 게임 콘텐츠 제작 공모전

**공모 기간:** 2026. 09. 11(금) - 11. 30(월)

**출품작:** 쿵야 레스토랑 IP를 활용한 로블록스 게임 콘텐츠

**카카오톡 오픈 채널 링크:** '쿵야 x 로블록스 공모전' 검색

**내 용** | 제공되는 쿵야 레스토랑 IP 에셋을 이용해, 로블록스 내 체험 콘텐츠를 기획/개발

**접수기간** | 2026. 09. 11. (금) ~ 2026. 11. 01. (일)

**대 상** |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 가능 (팀 참가 시 팀 명과 함께 대표자 1인 지정 필수)

**신청방법** | [Step 1. 참가 신청 및 기획안 제출 (에셋 수령)]  
① 로블록스 크리에이터 허브(Roblox Creator Hub) 내 [모든 도구(All Tools) > 라이선스(Licenses)] 탭에서 'Koongya Restaurant'를 선택한 후 쿵야 IP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② 공모전 공식 구글 폼을 통해 참가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Step 2. 최종 작품 제출]  
- 참여 방법: 개별 안내받은 최종 제출 전용 구글 폼을 통해 완성작 접수  
- 제출 사항  
① 완성된 로블록스 게임/체험 링크  
② 게임 플레이 영상(3분 이내)  
③ 최종 기획 소개서(형식 자유, 10페이지 이내)

**주요사항** | 게임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있거나, 게임 개발 사업자로 활동 중인 자는 참가가 불가

**문 의** | [쿵야 x 로블록스 공모전] 카카오톡 채널

특집 1



독립 적정 나이

언제,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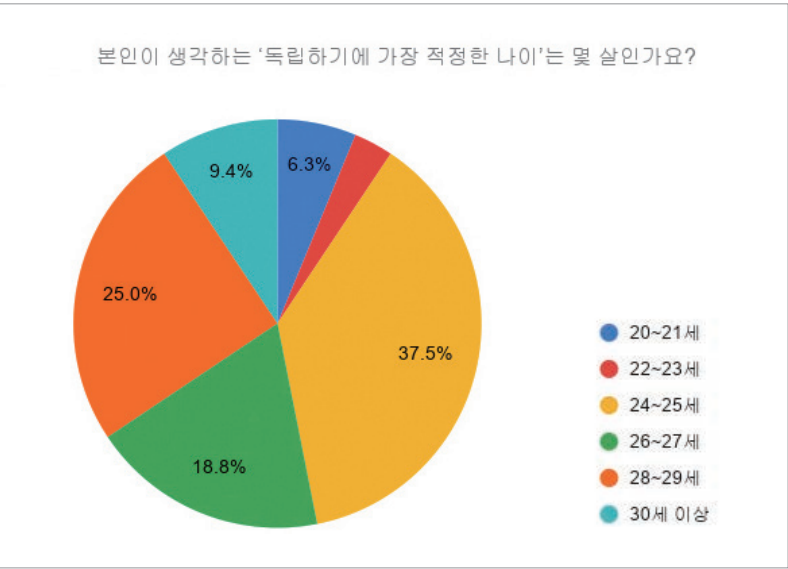
지난 9월 14일 우리 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독립에 대한 인식과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학우들이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독립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우가 독립을 희망하면서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재 거주 형태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70.6%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취가 17.6%, 기숙사가 11.8%로 뒤를 이었으며, 여전히 많은 학우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우들에게 독립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58.8%가 '있다'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미 독립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17.6%, '없다'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각각 11.8%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학우가 독립을 한 번쯤 고민해 본 것으로 나타나 독립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우들이 생각하는 독립의 적정 연령은 몇 살일까. 조사 결과 28~29세가 35.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24~25세가 29.4%로 뒤를 이었다. 26~27세와 30세 이상은 각각 17.6%, 11.8%를 기록했으며, 20대 초반을 적정 나이로 꼽은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한 학우는 "20대 초반은 아직 학업이나 진로가 정리되지 않은 시기라 독립을 감당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독립 시기에 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취업 후'가 3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가 29.4%로 뒤를 이었다. '졸업 직후'는 23.5%



▲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독립 적정 연령

였으며, '대학 재학 중'이나 '결혼 전후'를 꼽은 응답은 각각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를 통해 학우들은 특정한 나이보다 취업이나 경제적 안정 등 현실적인 조건을 독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묻는 문항에서도 나타났다.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한 저축'이 17.6%,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11.8%로 뒤를 이었다. 생활 능력이나 심리적 준비를 꼽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국 학우들에게 독립은 심리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독립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주거비와 월세'가 31.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생활비 부담'과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가 각각 25%로 공동 2위를 기록했으며,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라

는 12.5%였다. 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해서'나 '독립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를 선택한 학우는 없었다. 경제적 부담이 독립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셈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독립이 가능한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당장은 어렵다'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미 독립해 살고 있다는 응답이 17.6%, '독립할 생각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11.8%였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우가 현재 경제적 여건만으로는 독립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학우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 때문에 독립을 미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독립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독립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바라보기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과 주거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독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이다.

박상현 기자 tkdgus1384@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일학보사 홈페이지: 기사제보함  
인스타그램: @seoil\_press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한글날 100주년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우리 사회는 뜻깊은 법정기념일을 맞이한다.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우리 글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양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특히 올해는 1926년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가 한글 제정을 기념하여 선포한 '가갸날'을 시작으로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다. 단순한 쉬는 날을 넘어, 세상을 밝힌 독창적 문자 창제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를 깊이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한글날의 유래는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민족의식과 언어를 말살하려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고자 했던 학자들은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첫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후 1928년 '한글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 창제 원리와 반포일이 명확히 밝혀짐에 따라 이를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반포일, 창제 원리가 원본 서적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문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식 독점을 깨고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글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한글의 현주소는 치열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무분별한 줄임말과 정체불명의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으며, 세대 간 언어 격차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의 확산이 한글 본

래의 소통 기능을 훼손하고 있어 올바른 언어문화를 가꾸고 가치를 보존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제100주년을 맞이한 한글날은 한글의 역사와 유산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글은 단순한 전달 도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뿌리다. 올바른 한글 사용과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한글을 창제하고 지켜온 선조들의 정신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자, 올바른 사회적 소통을 이어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 '훈민정음' 해례본

## 인터뷰 1

##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

### 유아교육학과 학회장 지현아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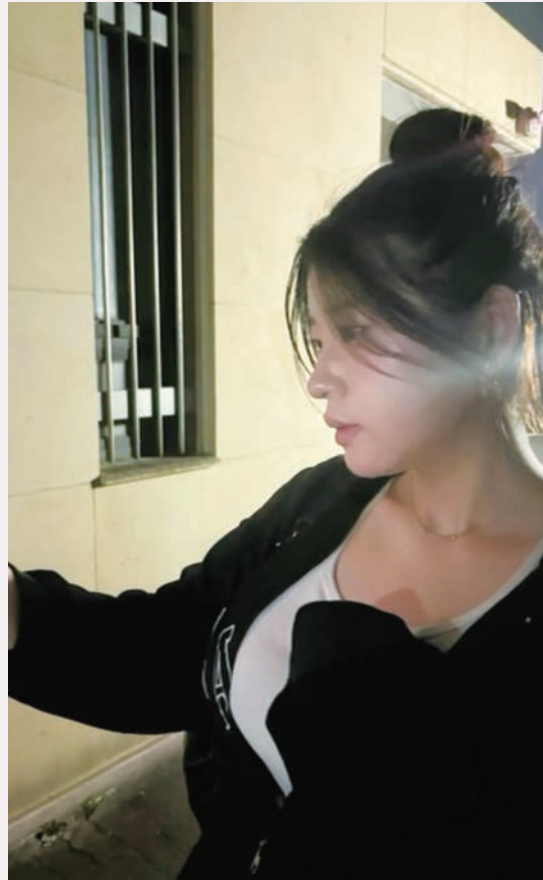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아교육학과 학회장으로 당선된 지현아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학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 유아교육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학과는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배우며 미래의 유아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는 학과입니다.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구 제작과 실습, 활동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늘 유익하고 알찬 수업을 준비해 주시고,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점도 우리 학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경험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 진행할 축제나 OT가 가장 기대됩니다.



▲ 유아교육학과 학회장 지현아

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학회장단이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의견을 나누며 하나의 행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학우들이 즐거워하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준다면 학회장으로서 가장 뿌듯할 것 같습니다.

#### 유아교육학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과 행사와 친구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입니다.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우들과 가까워지고, 함께 웃으며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갔던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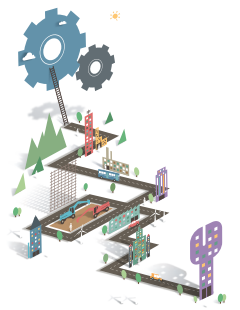
앞으로 학회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유아교육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아 기자 treasureshine29@gmail.com

## 인터뷰 2

## 전기로 미래를 밝히다

### 전기공학과 학회장 이학민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학민입니다. 현재 전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 전기공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회로, 전기기기, 전기설비 등 전기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더 나아가 실습으로 실무능력을 함께 갖출 수 있으며, 졸업 후 전기설비, 전기공사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폭넓은 진로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과 행사와 학생회 활동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학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학우들과 소



▲ 전기공학과 학회장 이학민

통하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전기공학과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새내기끼리에 참여했던 경험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학우들도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선후배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우들의 단합력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생활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인 만큼 학우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만들어가는 순간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우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tkgus1384@gmail.com